

세계 에너지 현황과 전망

I. 석유

1. 석유매장량

OGJ지에 따르면 1990년 1월 1일 세계의 추정확인 매장량은 재평가한 결과 사상 최고인 1조20억배럴이 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10.5% 증가한 것이다.

그중 약 77%는 OPEC 각국에 5%는 OECD 각국에 매장되어 있다. 세계 전체의 매장량은 950억 배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 증가에 의한 것이다. 1989년 1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 850억 배럴의 매장량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6년간에 걸친 철저한 조사결과이다.

사우디의 석유매장량은 약 2,550억 배럴로, 이는 세계 석유매장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아랍코는 또한 기존 유전이 더 개발되어 시추작업이 확대되면 사우디의 석유매장량은 3,000억 배럴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우디가 매장량을 상향 수정함으로써 OPEC 주요 6개국(사우디, 이라크, 이란, 베네수엘라, UAE, 쿠웨이트)의 총매장량은 1984년 1월 이후의 연속적인 재평가에 의해 3억배럴 이상이나 증가한 것이 된

다. 이들 6개국은 세계의 확정 석유매장량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2. 석유생산

1989년 세계의 원유/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의 6,280만 b/d에 비해 약 2% 증가한 6,420만 b/d였다.

1989년 OPEC 각국의 원유/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의 2,150만 b/d에 비해 약 10% 증가한 2,370만 b/d로 이는 非OPEC 각국의 생산량 감소를 충당하고도 남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88년에 34.1%였던 세계의 원유/천연가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OPEC 각국의 원유/천연가스 생산량의 비율은 1989에 37%로 증대하였다.

OPEC 주요국 중 1989년에 있어 1월 평균생산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한 국가는 베네수엘라 뿐이었다. 여타 OPEC 주요국은 모두 1989년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OPEC 각국의 생산량은 1989년의 생산할당량을 초과하였다.

非OPEC 각국의 생산량 감소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OPEC 각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필요가 있었다. 非OPEC 각국(구소련 및 중국 포함)에서는 天災, 政

情不安, 기술적 실수 등으로 생산량이 약 120만 b/d나 감소하였다.

북해의 영국 생산시설에서 사고가 발생, 이의 보수기간이 오래됨으로써 영국의 원유 총생산량은 1988년에 비해 49만 b/d 감소하였다. 이 감소분은 노르웨이에서의 생산량 증가(38만 b/d)에 의해 거의 충당되었다.

구소련과 미국에서도 생산량은 대폭 감소하였다 (구소련은 전년비 33만 b/d 감소, 미국은 전년비 59만 b/d 감소). 알래스카에서는 엑스사 Valdez호의 사고로 인해 원유생산 활동이 일시 중단되었다.

3. 석유가격

원유 스파트 가격은 브렌트, 두바이, OPEC 바스켓 가격이 1989년중 3단계에 걸쳐 변동하였다. 1988년 11월에 12\$/B 이었던 OPEC 바스켓 가격은 89년 4월 말에는 19\$/B를 넘어 최고에 달했다.

이러한 원유가격의 상승은 非OPEC 각국의 생산량 감소, Valdez호의 원유 대량유출사고 및 북해에서의 폭발사고가 원인이었다. 그러나 5월부터 8월에 걸쳐서는 OPEC 각국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북해의 생산량이 종전 수준으로 회복됨으로써 가격은 하락하였다. 8월 1~2주에 OPEC 바스켓 가격은 16\$/B 이하로 하락했으나, 연말 가까이에 제품가격의 호조와 非OPEC 각국으로부터의 공급량 재차 감소에 의해 유가는 다시 상승하였다. 12월 말에 OPEC 바스켓 가격은 20\$/B까지 상승하였다.

4. 석유수요

1989년 세계의 석유수요는 6,450만 b/d로 추정되며 이는 1988년의 6,340만 b/d에 비해 약 2% 증가한 것이다.

공산권을 제외한 세계의 석유수요는 1988년에 약 5,000만 b/d였으나 1989년에는 약 5,150만 b/d로 증가하였다. 이는 3.5%로 추정되는 세계경제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발전 및 원자력발전과 수력발전의 공급부족에 따른 연료유 수요의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1989년 OECD 각국의 석유수요는 3,560만 b/d로 이는 세계 석유수요의 55%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숫자는 1988년에 비해 1% 이상 증가한 것이다. 1989년의 1/4분기는 기상이 온난하여 석유수요가 부진했던 것도 관련이 있다.

OECD 각국의 수요는 제2차 오일쇼크 여파를 아직 볼 수 없었던 1979년에 달성된 3,960만 b/d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1973년과 1979년에 석유가격이 급등함으로써 대체에너지의 개발, 에너지 절약조치의 강화 및 에너지 집약형 산업으로부터의 전환 등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초의 세계적인 경기후퇴 또한 OECD 각국의 석유수요 감퇴를 초래하였다. 1983년 시점에서 OECD 각국의 석유수요는 3,220만 b/d로 감소했으며 그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非OECD 각국에서는 1973년 이후 석유수요는 85%나 증가하였다. 1989년에 非OECD 각국의 석유수요는 전년비 4.9% 증가한 1,440만 b/d로 이는 세계 총수요의 22%를 차지하였다. OECD 각국에서는 석유수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자동차용 휘발유인데, 1989년에는 1,180만 b/d로 전체의 33%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非OECD 각국에서는 휘발유가 약 310만 b/d로 전체의 21%를 차지하는데 불과하다. 非OECD 각국에서는 여전히 경유의 비율이 29%로 높다.

석유수요구성비의 차이는 정제설비의 차이로 나타난다. 예컨대 1989년 석유소비량의 약 절반이 휘발유였던 미국에서는 정제설비에 대한 투자는 수송용 연료의 생산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주요 OECD 회원국의 하나인 日本에서는 휘발유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

5. 석유정제

1989년에 있어 공산권을 제외한 세계의 원유처리 설비능력은 5,500만 b/d로 추정되고 있다. 1989년 이 지역 정유공장의 원유처리량은 약 4,500만 b/d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제설비의 연간 평균 가동률은 약 82%에 달한 셈이 된다.

가동률이 65%였던 1980년 초에 비하면 큰 진전이라 하겠다. 공산권을 제외한 세계에서는 석유정제업자에 의해 고도화설비능력의 장비가 강력히 추진

되어 왔다. 고도화설비능력의 증가는 수송용 석유 및 고품질제품의 수요증대에 대처하는 것이다. 고품질 제품의 수요증대의 하나는 환경문제에의 대응을 반영하는 것이다.

1차 정제설비능력에 대한 고도화설비능력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北美이다. 1989년 북미의 고도화설비 집약도는 원유처리설비능력의 약 68%에 달했다. 이는 이 지역에서 휘발유 수요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약 730만 b/d로 추정되는 휘발유 생산능력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분은 세계 각지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1989년에는 美國 이외에서의 정제마진이 높아졌다.

1989년 1/4분기에 북대서양 연안지역에서의 정제마진은 감소하였다. 이는 원유가격 상승에 상응한 제품가격 상승이 없었기 때문이다. 1/4분기말에 수요증가와 더불어 보수를 위한 정유공장 휴업이 중복됨으로써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여 봄철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름철에 접어들자 휘발유 생산량과 휘발유 수입량이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제품가격 및 정제마진은 내려갔으나 가을철에는 정유공장이 재차 보수 때문에 폐쇄되자 다시 상승하였다. 겨울철에는 흑한으로 경유 수요가 증대하였다.

동부에서는 정제마진은 별로 변동하지 않고 日本 및 NIES에서 제품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6. 석유거래

1989년에 있어 석유의 국제거래량은 전년의 2,700만 b/d보다 약 6% 증가하여 2,850만 b/d가 되었다. OPEC 각국의 수출량은 전년비 12% 증가하여 1,980만 b/d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수출량 증가와 1989년의 고유가로 인하여 OPEC 각국의 輸出收入은 전년비 290억달러 증가하여 1,17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OPEC 회원국 중 쿠웨이트, UAE, 나이지리아 등 3개국은 수출량이 전년비 약 22% 증가했으며, 이란은 41%나 늘었다. 1989년 非OPEC 각국의 석유수출량 합계는 870만 b/d로 전년비 5% 감소한 것이다. 이는 非OPEC 주요산유국 일부에서 원유생산량이 감소한 것과 국내수요가 다소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예컨대 英國의 석유수출량은 전년비 64% 감소한 32만 b/d이고, 공산권의 수출량은 전년비 19% 감소한 약 230만 b/d였다.

1973년 이후의 석유수출 추이를 보면, 1980~86년에 OPEC 각국의 석유수출량이 감소한데 비해, 이 기간에 非OPEC 각국의 수출량은 440만 b/d에서 830만 b/d로 증가하였다.

세계 최대의 원유수입국은 美國이다. 1989년 美國의 원유수입량은 780만 b/d였는데, 이는 전년비 19% 증가한 것이다. 주요 석유수입국 중 1989년 輸入이 감소한 곳은 서독뿐이었다(230만 b/d).

II. 천연가스

1. 천연가스 매장량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현재 108.53조m³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1988년 추정량에 비해 약 2% 증가한 것이다. 전년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泰國(전년비 43% 증가한 2,000억m³)과 파푸아 뉴기니(전년비 50% 증가한 1,200억m³)였다.

세계의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40%는 공산권내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은 곳은 前蘇聯(매장량 40.58m³)으로 세계 총매장량의 약 37%를 차지한다. 2위는 이란(13.9m³)으로 세계 총매장량의 약 13%를 보유하고 있다.

2. 천연가스 생산

1989년 세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의 1,835조m³에 비해 3% 증가한 1,893조m³였다.

1973년부터 1989년까지 생산량의 지역별 내역을 보면, 前蘇聯(7,410억m³)과 美國(4,670억m³)이 세계의 2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양국이 세계 천연가스 총생산량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1989년의 공산권 특히 前蘇聯과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비 4% 이상 증가하였다. 前蘇聯의 세계의 천연가스 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는데 천연가스 생산량을 더 증가시킬 여지가 있다.

美國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1989년에는 약 2% 증가해서 70억m³가 되었으나 아직도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1973년의 생산량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美國에는 세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의 약 5%가 있다.

3. 천연가스의 소비

몇가지 중요한 예외는 있으나, 1989년의 소비패턴은 전체적으로 생산패턴과 흡사하다. 日本은 천연가스의 주요생산국이 아니고 주요소비국으로 수입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천연가스 소비량의 대부분은 주택 및 상업시설의 난방수요에 영향받는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매년 기상변화가 천연가스 소비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1988년 西유럽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전년비 약 4% 감소했는데, 이는 1987년부터 1988년에 걸쳐 겨울철 기온이 따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8년부터 1989년에 걸친 겨울 역시 暖冬이었는데도 1989년에는 천연가스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스칸디나비아 및 南유럽에서 천연가스의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었기 때문이다.

4. 천연가스 거래

1989년 천연가스의 국제거래량은 약 2,620억^m로 이는 세계 총소비량의 약 14%가 된다. 이중 약 74%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나머지는 LNG로 해서 거래되었다.

파이프라인 가스의 주요 수출국 중에서 전년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네덜란드로, 1988년에 245억^m였던 것이 1989년에는 약 20% 증가하여 293억^m가 되었다.

구 소련의 천연가스 수출량은 827억^m에서 820억^m로 다소 감소했으며 노르웨이, 캐나다, 알제리는 약간 증가했다. 파이프라인 가스의 주요 수입국 중에서 수입량이 감소한 곳은 영국 뿐이었다. 美國 및 서독의 수입량은 각각 7%와 4% 증가하였다.

세계의 천연가스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LNG 거래량의 비율은 착실히 증대되고 있다. 1973년에 약 10%였던 것이 1989년에는 약 26%에 달했다. 1989년 LNG 수출량은 전년비 약 11% 증가한 677억^m에 달했다.

세계에서 LNG 수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인도네시아로, 약 262억^m를 주로 日本에 수출하고 있다. 日

본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LNG 물량은 日本의 LNG 총수입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알제리는 LNG 수출능력을 확대, 1989년에는 6개국에 LNG를 수출했는데, 그중에는 적지만 日本 및 美國으로의 수출량도 포함되고 있다. 또한 1989년에는 호주의 노스웨스트 셸프로부터 日本에 LNG를 공급하는 프로젝트가 개시되었다.

Ⅲ. 석탄

1. 석탄자원과 석탄매장량

경제적으로 회수가능한 무연탄의 세계 추정매장량은 1989년에 상향수정되어 8,000억톤에서 1조 750억톤이 되었다.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中國으로 1989년에는 회수 가능한 추정매장량이 3,450억톤에서 6,110억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증가율은 약 80%인데, 이것은 주로 中國의 석탄자원 기반에 대한 정보량이 증대한 결과이다.

印度의 추정매장량도 110억톤에서 610억톤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것은 이용 가능한 무연탄에 대한 定義의 수정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북미, 유럽, 구 소련의 추정매장량은 모두 다소 증가하였다.

또한 갈탄의 매장량은 약 5,200억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것은 무연탄 매장량으로 환산하면 약 2,350억톤이다. 따라서 1989년에 있어 채산상으로 보아 회수 가능한 추정 석탄 총매장량은 무연탄 환산으로 1조 3,100억톤이었다.

2. 석탄생산

1989년 세계의 무연탄 생산량은 전년비 약 2,500만톤 증가한 약 34억 7,500만톤이었다. 1973년 이후 무연탄의 생산량은 약 13억톤(약 60%) 증가하고 있다.

1973년 이후 세계 석탄생산량 증가분의 60% 이상은 中國 및 구 소련에서 기록되고 있다. 1989년 양국의 석탄 생산량은 합해서 약 17억 5,700만톤으로 이는 세계 총생산량의 50%를 차지한 것이다.

또한 1973년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합계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약 9%였으나, 1989년에 이 비율이 약 15%로 증가하여 프랑스, 서독,

영국, 日本 등 생산 코스트가 높은 나라들의 생산량을 상회하였다.

주요 생산국 중에 1989년의 생산량이 전년을 상회한 곳은 美國,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이었다. 호주는 1989년 전반기에 파업, 악천후 등의 악조건이 있었으나 신규 노동규칙이 실시됨으로써 생산량이 증대하였다.

中國도 생산량이 900만톤 증가했고, 구 소련에서는 파업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3. 석탄소비

과거 10년간에 있어 무연탄 총소비량의 추이는 주로 석탄의 2대시장(1989년 총소비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 발전용 및 철강용) 동향에 영향을 받았다.

1980년 이후, 전력생산량은 약 40% 증가하였다. 이 증가분의 대부분은 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 증대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美國 및 극동에서는 그것이 무연탄 수요를 증대시켰다. 석탄은 여전히 발전부문에서 최대의 에너지 源이다.

1989년에 있어 中國, 美國, 구 소련의 무연탄 소비량은 다소 증가하였다. 서유럽에서는 2번째 暖冬 때문에 전력 수요는 전년과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댐의 수위 저하로 인해 수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이 저조함으로써 석탄 수요가 증대하였다.

4. 석탄교역

1989년의 무연탄, 보일러용 탄, 원료탄의 국제무역량은 전년의 3억 6,900만톤에 비해 약 2% 증가한 3억 7,600만톤이었다. 이는 세계 총생산량의 약 11%를 차지하는 것이다.

1989년에 있어서도 호주는 9,700만톤을 수출하여 여전히 세계최대의 무연탄수출국이었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에 비해 수출량은 1988년의 사상 최고였던 1억톤보다 감소하였다. 호주 및 구 소련의 수출량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美國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출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분을 보충할 수 없을 정도였다. 中國의 수출량은 100만톤 이상 증가했으나 그래도 예상을 크게 하회하였다.

1989년에 서유럽의 수입량이 전년비 14% 증가한 1억 3,300만톤으로 증가함으로써 1985년 이후의 감소 경향이 역전했다. 서유럽의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그 지역의 석탄 생산이 감소하고 수력 및 원자력 발전이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극동의 석탄 수입은 1973년 5,800만톤이었으나 1988년에는 1억 6,400만톤으로 증대했다. 1989년에는 한국, 日本, 대만, 홍콩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다소 감소하여 1억 5,800만톤에 머물렀다.

보일러용 탄의 수요가 정체된 것은 주로 1988년에 크게 증가된 재고수준의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콜롬비아가 1989년에 1,200만톤을 수출하여 석탄 수출국의 지위를 굳혔다. 인도네시아 및 베네수엘라는 석탄수출국으로서 비교적 새로운 국가지만, 석탄수출국으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989년 베네수엘라의 구아사레 탄광의 석탄 수출량은 150만톤에 달했다.

IV. 금후 전망

1980년대는 에너지 산업에 있어 격동의 10년간이었으며 1990년대 또한 에너지 산업에 있어 多事한 10년간이 될 것 같다. 1989년 마지막 수개월간에 21세기 에너지 산업의 모습을 예상케하는 사건이 몇 가지 발생하였다.

다음은 1990년대에 있어 3가지 중요문제를 개관한 것이다.

1. 동유럽과 구소련

동유럽과 구 소련에 있어 정치변혁의 페이스는 1989년 말에 가속화되어 동독,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에서 공산당 정권이 붕괴되었다.

1990년 처음 수개월간에 일부 동유럽 각국에서 실시된 자유선거의 결과, 경제의 침체 경향을 역전시킬 임무가 새로운 정치세력의 손에 맡겨졌다.

이제는 이들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장원리 도입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투자자들에게 의한 투자가 크게 장려되고 있다. 합작사업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거나 계획되

어 있으며, 일부국가에서는 외국투자자에 의한 100% 투자가 인정되고 있다.

구 소련은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고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7%를 보유하고 있다. 구 소련에서는 국영석유회사 및 석탄회사끼리의 합작사업, 국영회사와 민간회사의 합작사업(생산분배방식의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가까운 장래의 에너지산업 동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지구적 규모의 기후변화

화석연료의 연소, 특히 수송 및 발전용 화석연료의 연소가 대기 속으로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가스는 열을 유지하는 작용을 하여 온실가스(*greenhouse gas*)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해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나오게 되었다.

메탄, 프레온 등 여타 가스도 온실가스가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원흉으로 되어 있다.

「온실효과」에 대한 과학적 해명은 아직 착수된지 얼마 안되는데,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 있어서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학적 증거의 평가와 온실효과를 저지하는 조치의 검토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와 전문위원회(세계 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기구가 설치한 전문위원회)」의 작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 전문위원회는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1990년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에너지 사용은 경제활동에 불가결하며, 화석연료의 연소는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세계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각국의 정책 수립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세계의 인구, 경제개발의 필요성, 이산화탄소 경감이라는 요인을 조화시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경제개발 가능성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특히 개도국에

이익을 초래하는 정책수립이 초점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에너지 효율을 더욱 높이는 정책 수립이다.

OECD 각국의 에너지 消費原單位는 과거 20년간 크게 저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더욱 높일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 각국 정부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계획을 실시, 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경제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에너지 산업은 이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공급할 수 있다.

에너지 산업은 또한 개도국이나 동유럽의 신흥국가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전에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지구적 규모의 합의에 의해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3. 에너지의 안정공급

석유는 여전히 세계의 에너지 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원유의 가채년수(R/P)는 42년이다. 석유의 회수기술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신규유전 탐사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어, 석유매장량은 유가가 상승하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후 석유생산량은 현재 수준이거나, 이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中東의 원유생산 코스트는 非OPEC 각국보다 상당히 낮다. 非OPEC 각국의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는 데도 수요는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OPEC 각국의 시장 점유율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상승에 의해 비 OPEC 각국의 생산량이 제차 증대되더라도 非OPEC 각국의 석유가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1990년대 말에는 OECD 각국의 OPEC 석유 의존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급안정에 관한 중대한 문제는 1970년대 초의 오일 쇼크시 주목을 받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제차 주목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연료에의 전환 노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油開公, 주간석유뉴스〉